

한국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은주

目次

| | |
|--------------------------|------------------------|
| I. 머리말 | 1. 일상복에서의 좌우 양상 |
| II.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개념 | 2. 상례복에서의 좌우 양상 |
| 1. 좌·우의 사전적 의미 | 3.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의 특징 |
| 2.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양상 | IV. 맺음말 |
| 3. 좌우 개념 형성의 기본 원리 | ABSTRACT |
| III. 전통복식문화 속에 투영된 좌우 개념 | |

I. 머리말

본 연구는 전통복식문화 속에 산재되어 있는 좌우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계되었다. 전통복식문화 속에 드러나는 좌우 양상의 실례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상의의 여밈과 관련된 좌우 양상일 것이다. 우리 민족복식의 기본형은 본래 상의가 좌임인 스키타이계 북방호복 계통의 것이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우임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된다. 언제부터,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또한 비교적 근세의 일이긴 하지만 여성 치마의 꼬리방향이 班常을 구별하는 단서가 되었던 시절이 있다. 과연 언제부터, 왜 그러한 단서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일까? 또 상례 과정에서 斂襲衣의 여밈을 좌우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주의 굴건 주름방향은

왜 左縫과 右縫으로 구분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것이 죽은 자와의 친소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양상의 변화와 의미의 인지를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전통복식문화에 투영되었던 좌우 개념은 복식문화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좌우 양상은 조상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범의 준거였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좌우 문제가 복식문화를 포함한 전통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문헌이나 회화, 유물자료, 관련 관행 등을 통해 일상문화 속에서의 좌우 양상을 살펴보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표 1> 역대 중국의 존좌·존우 양상(『中文大辭典』三, 七三四)

| 三代 | | 戰國 | | 秦 兩漢 | | 六 朝 | | 唐 | 宋 | 元 | 明 | 清 |
|----|----|----|----|------|----|-----|----|----|----|----|----|----|
| 朝官 | 蒸飲 | | | | | 朝官 | 蒸飲 | | | | | |
| | 凶事 | | | | | | | | | | | |
| 尙左 | 尙右 | 尙右 | 尙右 | 尙右 | 尙左 | 尙右 | 尙左 | 尙左 | 尙右 | 尙左 | 尙左 | 尙左 |

고 그 속에 투영된 좌우 개념을 추출한 후, 전통복식문화 속에 투영된 좌우 개념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복식문화에서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개념

1. 좌·우의 사전적 의미¹⁾

오늘날 ‘오른쪽’이라는 말은 ‘바람직한 것’ 또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왼쪽’이라는 말은 ‘그르다’ 또는 ‘나쁘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좌’를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해방 후, 좌·우의 투쟁으로 인하여 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左遷과 같은 어휘의 부정적 의미 때문에 왼편은 대체로 불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右利僻左’로서 오른손을 즐겨 쓰고 왼손 쓰기를 기피하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中文大辭典』³⁾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좌·우 어휘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좌’에는 陽位와 上位, 東, 西, 道, 左遷, 卑下 등의 의미가 있다. 좌의 개념에는 이렇듯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 부정적인 개념은 오른손의 사용이나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긍정적인 개념은 관

직의 우열성과 동쪽, 양기의 방위로 인식되면서 생성·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음양사상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좌는 우보다 더욱 긍정적인 개념이었다는 인상을 준다.

한편 우의 의미로는 陰位, 下位, 東, 西, 上, 正道, 地道, 仁 등이 있다. 우의 개념에도 동과 서, 上과 下처럼 상반되는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차원에서의 ‘우’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人道나 地道, 喪禮 또는 오른손 사용과 관련된 陰事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좌우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와 관련되는 尊左, 尊右 경향은 민족이나 시대, 문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배민족이 교체되었던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중국 역대왕조의 존좌와 존우의 경우를 정리한 <표 1>⁴⁾을 보면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도 경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존우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시대는 武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는데, 결국 오른손의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 역으로 존좌 경향이 지배적인 시대는 문치주의가 지배했던 문화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존좌·존우 경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단정지를 수는 없으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左를 높이는 존좌 사상이

1) 줄고, 『전통문화 속에서의 左·右 개념』, 『한국민속학보』 第8輯, 1997, 23~50 참조

2) 朴甲子, 『語源隨筆』, 서울: 乙酉文化社, 1974, 185

3) 中國文化大學 編, 『中文大辭典』 二(475), 三(1025), 1985

4) 앞책 三, ‘尙左尙右’, 1985, 734

전통사회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양상

서로 상반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좌우 개념이 실제 우리의 전통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었는지 실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1) 관직 및 정치적 서열과 자리

좌의정과 우의정 중 좌의정이 높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좌우로 양분된 관직에서는 대체로 좌를 높였다. 존우의 경향을 보였던 전국 시대나 진·한 시대, 그리고 원대의 경우는 軍禮를 숭상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이 숭상되었던 대부분의 시대에는 좌를 높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관직이었던 것이다.

官場에서 자리 배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天子南面’ 원칙⁵⁾이다. 아울러 좌우와 관련된 ‘左文右武’ 원칙이 있다. 문반은 남면한 군주나 왕의 왼쪽, 즉 동쪽에 자리하고 무반은 왕의 오른쪽, 즉 서쪽에 위치한다. 문이 숭상될 때는 문반이 자리하는 좌측이 높은 자리이다. 그러나 무가 숭상되는 시기에는 오른쪽이 높게 된다.

2) 남녀의 자리

남녀가 함께 자리할 때, 陽인 남자는 왼쪽, 즉 동쪽에 앉고, 陰인 여자는 오른쪽, 즉 서쪽에 앉는 것이 일반적인 법도였다. 이러한 예는 『禮記』 「禮器」에 동쪽에서 태양이 나오고 서쪽에서 달이 나

오는 것은 곧 음양의 분별이며 부부의 위치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전통 혼례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⁶⁾ 신랑은 왼쪽에, 신부는 오른쪽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는 왼쪽인 동쪽이 양을 상징하고 오른쪽인 서쪽이 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陰事인 死後에는 정반대가 된다. 상황에 따라 존좌·존우의 경향이 바뀌는 대표적인 예이다. 사후의 세계는 음으로 인식됨에 따라 서쪽인 오른쪽을 더 높은 자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를 ‘西上’ 개념이라고 한다. 부부를 합장하는 경우, 보통 남자는 서쪽인 오른쪽에, 여자는 동쪽인 왼쪽에 매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⁷⁾

3) 昭穆制度

『周禮』에서 비롯된 소목제도는 사당에 위패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상례에서의 신위 자리배치와는 달리 태조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좌측을 소, 우측을 목이라 하여 제2자, 제3자를 각각 좌우에 모신다.⁸⁾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의 대성전 등에서 공자와 현유들을 모신 배향을 보면 이 소목제도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⁹⁾ 따라서 좌우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배치하는 소목제도 형식이 생시의 ‘천자남면’과 ‘좌문우무’의 陽事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볼 때, 현유들에 대한 생사를 초월한 절대적 대상들로서의 위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4) 地名

지명에는 ‘좌동우서’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경남 김해의 용성이나 경북 안동의 삼성동 일

5) ‘천자남면’이란 군주나 천자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는 것으로, 음을 진압하고 邪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毛建華, 『烏紗·龍袍·大堂: 中國古代官場習俗』,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1993, 101 참조

6) 朱熹, 『家禮』 卷三 昏禮 七 ‘司馬溫公曰 古者同牢之禮 壻在西東面 婦在東西 蓋古人尚右 故壻在西尊之也 今人既尚左 且從俗’

7) 장철수, ‘합장 승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1994, 419

8) 毛建華, 앞책, 1993, 102

9) 이은주·임재영·홍나영, 『王世子出宮圖』의 服飾 研究 I’, 服飾 第28號, 1996, 179

대는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좌부면’, 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우부면’이라고 했다. 또 조선시대 水營의 경우에도 각 도의 동쪽에 배치되었던 수군은 ‘左水營’이라 하고 서쪽에 배치되었던 수군은 ‘右水營’이라고 하였다.¹⁰⁾ 또한 경상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 동쪽을 左道라 하고 강 서쪽을 右道라고 하였다.¹¹⁾ 이러한 ‘좌동우서’ 원칙은 통치자인 군자가 북쪽을 등진 ‘천자남면’ 상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건물 배치

북반구에서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건물의 坐向을 남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한 실용적인 원칙에 따라 건물의 좌향이 결정됨으로써 천자가 남향으로 자리하는 ‘천자남면’ 원칙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전통 건축에서 좌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경우는 宗廟와 社稷이다. 국가 최고의 제사가 올려지는 곳인 만큼 건물도 최고의 격식을 갖추었다. 조선은 건국 초 남향으로 궁궐의 좌향을 정하고 『周禮』의 ‘左廟右社’ 예제를 따라 궁 중심으로 종묘를 왼쪽에, 사직을 오른쪽에 두었다.¹²⁾ 이를 통해 왼쪽에 자리한 종묘가 사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일상적인 주거공간은 유교적 사고방식에 의해 남자와 여자의 것으로 분리되었다. 일반 반가에서 뿐만 아니라 창덕궁 대조전과 같은 궁에서도 임금의 방을 좌측인 동쪽에 배치하여 ‘동온돌’이라 하고 우측인 서쪽에 배치한 중전의 방은 ‘서온돌’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남녀의 좌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좌남우여’의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음식의 배열

『禮記』에는 아이가 밥을 먹을 나이가 되면 오른손으로 먹는 것을 가르치며 국은 오른쪽에 두고 밥은 왼쪽에 둔다¹³⁾고 하였다. 이는 ‘乾左濕右’ 원칙으로, 오른손 사용과 관련된 실용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제사상에 음식을 배열하는 방법은 집안마다 다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에 棗栗梨柿, 紅東白西, 生東熟西, 魚東肉西, 頭東尾西, 櫟東蠶西, 乾左濕右, 左脯右醢, 右飯左羹 등이 있는데¹⁴⁾ 선행연구(1997)에서 지적했듯이 ‘우반좌갱’을 ‘좌반우갱’으로 수정하면 후손인 진설자의 입장으로 통일된 원칙이 된다. 제물의 위치는 신위 맞은 편인 陽位의 生者 입장에서 陽事 개념으로 진설하면 신위 입장에서는 저절로 음사 상태가 되므로 음양의 상황이 바뀌는 문제가 해결된다. 결국 일상적인 음식의 배열은 오른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실용적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금줄

금줄이란 신성한 공간을 다른 곳과 분리시키기 위해 치는 새끼줄을 말한다. 새끼줄이 금줄로서의 효능을 갖게 되는 것은 평상시의 꼬임과는 반대로 꼬여진 왼쪽 꼬임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인 오른손잡이가 보통 만드는 오른쪽 새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성스러운 ‘신들의 공간’에서는 그 구별을 위해 평소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므로 새끼줄의 꼬임으로 공간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단지 일상적인 오른쪽과 대응되는 왼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차별 원

10) 오홍석, 『땅이름 나라이름』, 서울: 고려미디어, 1995, 9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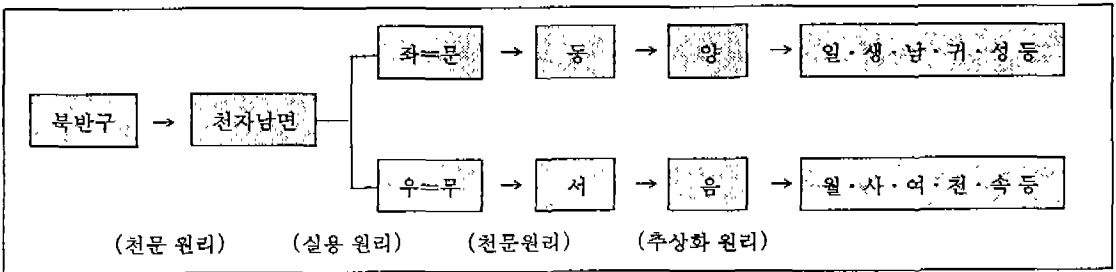
11) 李重煥, 『擇里志』 慶尙道, 1751(추정)

12) 김동욱, 『종묘와 사직』, 서울: 대원사, 1993, 6~14

13) 『禮記』 曲禮 上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14) 편집부 편, 『가정의례』, 서울: 조선일보사, 1994, 190~191

〈표 2〉 좌우 개념의 발전단계와 관여 원리의 추정



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광고롭게 성과 속의 공간에서 성은 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왼쪽의 의미와도 부합된다. 이러한 현상을 결과론적으로 추상화시켜 해석하면 '좌성우속'이라는 원칙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다.

8) 남녀 태아 구분

전통사회에서는 '남좌여우'의 원칙에 의해, 양인 남아가 수태되는 방위는 자궁의 왼쪽, 음인 여아가 수태되는 방위는 자궁의 오른쪽이라는 등의 속신이 있었다. 『東醫寶鑑』¹⁵⁾에는 태아 감별에 젓멍울이나 맥박 등의 좌우 위치를 관련지었으며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태중의 남아와 여아를 감별하는 방법에 좌우를 사용하고 있다. 『林圀十六志』에는 남아를 낳기 위해 체위까지도 좌우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언해대산심요』에는 임부가 雄黃 한 낭을 왼쪽 허리에 차고 다니면 여아가 사내아이가 된다는 근거없는 남녀전위법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⁶⁾ 이렇듯 전통사회의 지나친 아들 선호사상은 태아 성별과 좌우를 지나치게 결부시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속신과 행위까지 유도해냈음을 알 수 있다.

3. 좌우 개념 형성의 기본 원리

방위 개념에서 출발된 '좌우'라는 어휘는 이분법적 체계인 음양과 관련지어지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의미의 분화, 확대 과정을 하나의 가설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그리고 이분법적 체계에서 개념 결합을 통해 차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기본 원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추출될 수 있다.

1) 천문 원리

좌우는 항상 변화 가능한 유동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동서'라는 방위개념과 연결되었다. '천문 원리'는 북반구의 자연환경이 그러한 좌우의 기본적인 개념 형성에 작용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자가 명명한 것으로, 좌우 개념 발전의 방향을 결정지은 기초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남향이야말로 북반구의 기후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천자남면' 원칙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에 맞추어 좌는 동으로, 우는 서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 실용 원리

천자가 남면하는 것을 천문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실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좌우의 개념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남면한 존자가 양쪽으로 侍자를 거느리면서 좌우가 구분된다. 천자의 오른쪽에

15)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十 婦人 '...婦人有娠 左乳房有核是男 右乳房有核是女也...(中略)...脈法婦人妊娠四月 欲知男女法 左疾爲男 右疾爲女...'

16) 李圭泰, 『우리웃 이야기』, 서울 : 고려원, 1985, 33

는 그를 힘으로 보필해 줄 수 있는 무사가 자리하였을 것이다. 이는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고 왼손으로 방패를 들어 천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혜와 문필의 힘으로 보필할 문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존자의 왼쪽에 문반이 자리하고 오른쪽에 무반이 자리하게 된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였던 것이다. 음식 배열에 적용되는 건좌습우 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그 외 여러 상황에서도 실용성에 기초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추상화 원리

‘추상화 원리’는 허버트 리드가 주장한 ‘圖像이 思想을 선행한다’고 주장한 이론¹⁷⁾과 동일선상에 있다. 리드의 가설은 인간 의식의 발전에 있어서 사상보다는 항상 이미지나 도상, 또는 형상, 사실적 현상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 선행한다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다. 즉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변에서 구체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에 의미를 붙여 추상화시켜 나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용성에 근거를 둔 좌우 개념은 실용적인 것과는 무관한 이항적 개념들과 결부되면서 의미가 더욱 확장된다. 즉 추상화 원리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확대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천자가 남면하는 이유가 곧 南의 양기를 받아 陰과 邪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설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 남자가 왼쪽이니까 여자는 오른쪽이라든지, 생시에 좌가 우선이므로 사후에는 우가 우선이 된다든지 하는, ‘좌남우여’나 ‘좌양우음’, ‘좌성우속’ 등의 새로운 원칙 체계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화 원리의 작용에 의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면서까지 지나치

게 좌우를 확대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근거 없는 태아의 성별과 좌우를 관련짓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추상화 과정은 인간에게 사색과 상상력의 발전을 낳는 형이상학적인 단계를 지나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상까지도 좌우와 관련짓는 폐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Ⅲ. 전통복식문화 속에 투영된 좌우 개념

전통복식문화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좌우 양상을 편의상 일상복과 상례복의 두 범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상복에서의 좌우 양상

1) 상의 여밈에서의 좌우 양상

우리 민족의 과거 복식문화에서 좌우의 양상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상의의 여밈일 것이다. 우리 민족복식의 기본양식은 좁은 바지와 좁은 소매의 좌임 상의로 구성된 체형형이다. 이러한 복식은 체온유지와 유목생활에 적합한 북방 스키타이계로 규명된 바 있으며, 따라서 廣袖, 右襟型이 중국 복식과 구별되는 것¹⁸⁾으로 지적된다. 우리 옷의 여밈 방식이 우임으로 전환된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새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복식의 발전 단계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일대 변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좌임은 곧 우리 민족복식의 ‘원형기’라는 시대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¹⁹⁾

‘좌임’에서 ‘우임’으로의 전환 양상은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인물상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된다. 일찍이 李如星은 集安 부근의 삼실총이나 장천 1호분, 각저총 등의 벽화에 좌임 인물이 많고 사신총이나

17) 허버트 리드(金炳翼 譯), 『圖像과 思想』, 서울:悅話堂, 1987

18)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124~127

19) 줄고, ‘의생활의 역사’, 임재혜·한양명 편, 『한국민속사입문』, 서울:지식산업사, 1996, 607~628

쌍영총, 개마총 등 평양 부근의 고분벽화에서 우임 인물이 많다는 점을 들어, 평양 천도(AD 427년) 이후 좌임에서 우임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도 고분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좌우임 변화가 천도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좌임에서 좌·우임의 공존기를 거쳐 우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여성의 주장에는 아직까지 異論이 없다.

최근 평양 부근의 일부 고분이 집안 고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고²⁰⁾된 바 있다. 고분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볼 때, 전기(350~450년 경) 고분 중에서도 연대가 올라가는 평양 부근의 고분에서 우임이 흔히 나타나는 반면, 더 늦은 시기의 집안 고분벽화에서는 좌임의 인물이 많이 보인다. 특히 전기의 평양 부근 안악 3호분(357년)이나 덕흥리 고분(408년)의 벽화에 보이는 여자 묘주의 모습은 중국 甘肅省 酒泉의 4~5세기 東晉十六國 墓 벽화의 인물 모습²¹⁾과 대단히 흡사하다. 이는 집안의 것보다 오래된 평양 주변 고분에 漢文化的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집안과 평양 부근의 벽화 내용차이는 천도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고분 피장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민족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집안 부근에 자리했던 좌임의 우리 민족이 평양 천도 이후 그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우임 문화를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 천도 이후의 전기 고분에 속하는 평남 용강군의 대안리 1호분은 평양 쪽 고분 중에서 특이하게 좌임의 인물이 많이 보인다.²²⁾ 이런 점은 평양 천도 후의 집안 문화와 평양 문화가 혼합되는 과도기의 고분이 아닐까라

는 추정을 하게 한다. 그러나 집안의 중기(450~550년 경) 고분인 각저총에서는 여전히 좌임의 주인 부부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비교가 된다.

좌임에서 우임으로의 전환과 정착에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환 시기의 명확한 연대설정은 사실상 어렵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우임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에, 고구려에서도 집안보다는 평양에서 먼저 정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많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상류계층의 인물들은 비교적 중국적인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반면, 하층계급 인물들은 우리의 고유복식을 착용하고 있음²³⁾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임을 수용함에 있어 계급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평양 부근의 안악 3호분이나 수산리 고분, 쌍영총 고분에서도 주인은 우임이지만 斧鉞手나 폭예사는 좌임의 복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무용총의 경우에도 주인은 우임인 듯 하지만 무용하는 인물이나 기마 인물과 같은 시자들은 좌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복식문화의 수용 시기는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동서양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적 제약을 받았던 여성은 변화에 대한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신문화에 대한 수용 자세는 남성들보다 훨씬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²⁴⁾

한편 고이왕대(234~285 A.D.)에 마련된 백제의 사색공복제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우임제의 도입이 삼국 중 가장 앞섰을 것이라는 지

20) 朝鮮日報社 編, 『集安 고구려 고분벽화』, 朝鮮日報社, 1993, 24~25 참조

21) 高汎·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 香港: 三聯書店, 1988, 233

22) 金元龍, 『韓國美術全集4: 壁畫』, 서울: 同和出版社, 1980, 18(도6) 참조

23)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983, 119

24) 宮田久美子, 『左衽について』, 常盤學園短大研究紀要 8, 1980, 25~27 참조



(그림 1) 百濟國使(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인의 얼굴』, 1994, 118)

적²⁵⁾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梁 武帝의 제7자인 蕭繹이 荊州刺史 재임(526~539) 중 외국 사절을 그리고 해설을 했다고 하는 《梁職貢圖》²⁶⁾의 <百濟國使圖(그림 1)>에 묘사된 인물을 통해 이 시기에 이미 백제 관리는 우임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중국 한쪽은 일찍이 우임의 옷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論語』 「憲問」 편에 「管仲이 아니었다면 아마 머리를 풀어헤치고 좌임을 했을 것²⁷⁾이라는 공자(522~479 B.C.)의 지적에서 당시 한쪽이 우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갑골문 ‘衣’자에는 흔히 좌임의 깃 모양이 확인된다.²⁸⁾ 또 중국 각지에서 출토되는 인물상 등의 자료에서도 좌우임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朝 시대에 선비

족 등 북방민족의 세력이 팽창했을 때 좌임이 우세했던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 좌, 우임이 공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자가 지적했듯이 한쪽의 우임 원칙은 이미 춘추시대(기원전 8세기~기원전 5세기)에 정착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쪽의 기본 착장법으로 준용되었다는 데는 역시 이견이 없다.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 일본이나 중국 주변의 민족들은 중국의 문물을 도입하면서 중국의 우임제를 수용하여 점차 우임으로 바뀌어 갔다. 한쪽은 좌·우임을 華夷의 구별 기준²⁹⁾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우임 착장법이 한쪽 자신들에게 민족적 우월감을 느끼게 했으며 또 우리 민족을 포함한 주변의 좌임 민족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좌임을 우임으로 바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을 풀어 줄 자료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유추만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의 전환이라는 등의 기반문화의 성격 변화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실용적 목적이나 또는 우임 전환이 어떤 사회적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든지 등의 가설이 가능하다.

좌임은 걸자락의 끝이 왼쪽을 향한다. 胡服에서 좌임이 보편적인 이유는 활을 쏘기 위한 편리성 때문이라고 설명되는 경우³⁰⁾가 있다. 한편 좌임과 달리 우임은 오른쪽 자락을 먼저 덮고 나중에 왼쪽 자락을 여미는 방식이다. 深作光貞³¹⁾은 중국 한쪽의 경우, ‘우존좌비’ 관습 때문에 중요한 오른쪽을 착용자의 살갓에 가깝게 안으로 여미는 ‘右前’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1997)에서 지적했듯이 전

25) 李惠全, ‘高句麗壁畫服飾과 高松塚壁畫服飾의 比較研究’, 『崇田大學校 論文集』 제8집, 1978, 160

26) 洪思俊, ‘梁代 職貢圖에 나타난 百濟國使의 肖像에 對하여’, 『百濟研究』 第12輯, 忠南大學校, 1981, 167

27) 『論語』 「憲問」 ‘...微管仲 吾其披髮左衽矣...’

28) 許進雄(嶺南大 中國文學研究室 옮김), 『중국고대사회 : 문자학과 고고학적 해석에 입각하여』, 서울 : 지식산업사, 1993, 226

29) 李京子, 앞책, 1983, 26

30) 小川安朗, 『人はなにをいかに着てきたか』, 東京 : 文研出版, 昭和45, 138

31) 深作光貞, 『衣の文化人類學』, 京都 : PHP研究所, 1983, 111

통사회에서 '우존좌비'의 원칙이 언제나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우존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文武 중 특히 武가 중요했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상례나 여성과 관련된 상황 등, 대체로 陰事와 관련된 상황이었다. 특히 실생활에서는 '오른손 사용'이라는 실용 원리에 의거하여 우존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 한쪽이 단순히 '우존좌비' 관습 때문에 오른쪽을 살갓에 가깝게 여며서 우임이 되었다는 深作光貞의 설은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다.

『禮記』「喪大記」의 注, 疏에는 좌우임에 대한 의문을 다소 풀어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注'에 '좌임은 쏠이 왼쪽을 향한 것으로 생시와는 반대'라고 언급하고 있고 '疏'에는 '衽이란 생시에 오른쪽을 향하는데, 왼손이 대를 당겨 풀기 편하기 때문이다. 죽으면 衽이 좌측을 향하게 하는데 이는 다시 풀지 않기 때문이다³²⁾'라고 하였다. 『예기』의 기록은 좌우임 각각의 착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좌우임이 생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상징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생시에 왼손으로 고리를 푸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실용성 또는 기능성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交衽 袍의 경우, 시대가 올라가면 여밈의 정도는 상당히 깊어서 걸고름이 달리는 위치는 거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가 된다. 그런 경우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겨드랑이의 끈을 푸는 것이 훨씬 쉽다. 오른손으로 칼을 빼기에는 허리 오른쪽보다는 왼편에 칼을 차는 것이 편하다는 것³³⁾과도 같은 원리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찍이 오른손 사용을 권장해 왔다. 오른손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손동작에 있어서 오른손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

능성이 크다. 즉 옷자락을 여밀 때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먼저 쓰기 때문에 오른쪽 자락을 먼저 여미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우임으로 여미었을 때,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품에 넣고 빼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맵시를 위한 속옷 등의 정리도 쉬웠을 것이다. 이러한 우임이 지닌 실용적 성격은 현대 남성복 상의의 디테일이 오른손 사용을 배려했³⁴⁾이라고 설명되는 것과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임을 하고 오른손으로 고름을 푸는 것도 습관화만 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왜 왼손으로 고름을 푸는가? 왼손이 양의 손이기 때문일까? 이미 고대 중국에서는 생사가 좌우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생을 중시하는 만큼 생을 의미하는 좌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른손 사용을 통해 실용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양의 손인 왼손으로 길상적 의미까지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우임의 관습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여밈 방향에 남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본래 좌임이었던 민족의 경우, 우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용 시기의 차이 때문에 남녀 차이가 일시적으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자가 우임, 여자가 좌임이라는 원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자리의 배치나拱手할 때의 손의 겹침 모양새, 남녀 태아의 감별 등, 다양한 생활 관습 속에는 '남좌여우'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녀를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밈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이 복식문화에 투영된 좌우 개념에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밈의 좌우가 '남좌여우'의 원칙보다는 '오른

32) 柳長源, 『常變通攷』卷之八十一, 左衽不紐, 1783년, 永川: 迎春齋, 1991(影印本) 「喪大記」小斂大斂祭服不倒皆左衽 結絞不紐 (註)左衽衽鄉左 反生時也 (疏)衽衣襟也生嚮右左手解抽帶便也 死則襟嚮左不復解也 生時帶並爲屈紐使易抽解 若死則無復解義 故絞束畢結之不爲紐也

33) <http://tcp.com/~miyazaki/NAUSICAA-NEW/96-02/0275.html>

34) 마틴 가드너(과학세대 역), 『마틴 가드너의 양손잡이 자연세계』, 서울: 까치, 1994, 118 참조

손 사용'이라는 '실용원칙'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2) 치마 여밈에서의 좌우 양상

한복의 치마 양식은 뒤가 트인 개방형이다. 개방형은 대체로 어느 한 자락을 먼저 여미고 다른 자락을 겹쳐 입는 방식을 취한다. 근래의 한 조사 보고서³⁵⁾에 의하면 조사 당시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강원 지역이 주로 왼쪽으로 여미는 반면, 제주도 전지역을 비롯하여 경상도의 대부분 지역, 전남의 진도 등지에서는 주로 오른쪽으로 여밈었다고 한다.

한편 지역에 따라 치마 여밈 방향이 다르다는 요즈음의 인식과는 달리 100여 년 전만 해도 치마의 여밈 방향이 신분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다.³⁶⁾ 당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는 양반은 왼쪽, 상사람은 오른쪽 꼬리라는 규범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길에서 상사람이 왼쪽 꼬리 치마를 입은 경우, 물불기를 때리기도 했다³⁷⁾는 이야기에서 좌우와 관련된 규범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마 여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史料에는 치마 유물을 비롯하여 인물화, 풍속화 등의 회화자료가 있다. 특히 유물에서는 치마 자락 양끝의 주름 위치나 바느질 상태 등에 의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6세기의 조선시대 치마 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³⁸⁾

에서 당시 치마의 여밈 방향은 예복용이나 평상복 치마 모두 오른쪽으로 통일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안동 월곡면 예안 이씨(1584~1655)의 묘에서 나온 17세기 중엽의 치마³⁹⁾나 여주의 동래 정씨(1574~1647) 배위인 남양 홍씨의 묘에서 나온 치마 등도 주름 모양으로 보아 오른쪽 꼬리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 사당동의 여흥 민씨(1586~1655) 묘에서 출토된 치마 6점⁴⁰⁾ 중에 분간이 어려운 세 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점도 모두 오른쪽 꼬리로 확인되었으며 서울 하계동 출토의 문화 유씨(1615~1685) 치마⁴¹⁾ 또한 오른쪽 여밈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17세기까지는 오른쪽 꼬리가 보편적인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후반까지도 영·정조대의 풍속화에서는 왼쪽 꼬리 치마의 인물도 간혹 확인되지만 오른쪽 여밈의 인물이 여전히 양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이미 '양반은 왼쪽 꼬리 치마'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다. 조선 후기에 치마 여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뀐 원인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시각이 제시된 바 있다. 일례로 재봉틀 사용과 그에 따른 바느질 자세의 변화에서 찾아보려는 흥미로운 시각⁴²⁾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당과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고부자의 보고자료⁴³⁾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는 노른계열이 왼쪽 꼬리 치마를, 남인계열이 오른쪽 꼬리 치마를 입음으로써 두 형태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 봉화군

35) 高富子,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南韓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編, 『韓國服飾』 第七號, 1989, 102~105

36)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7, 1988, 91~111

37) 이규숙 구술(김연옥 편집),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 뿌리깊은나무, 1984, 201.

38) 朴聖實, '朝鮮朝 치마 再考: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第30號, 1996, 295~306

39) 安東大學校博物館 編, 『安東地域傳統服飾』, 사진 5. 예안이씨(禮安李氏, 1584-1655) 赤尔, 1996, 4

40) 裴尙慶, '貞夫人 羅興閔氏(東萊鄭廣敬의 配位) 遺衣에 관한 保存處理 및 服飾史的 考察', 京畿道 編, 『東萊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 1992, 73~78

41) 高富子·朴聖實,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遺物 小考', 檀國大學校 附屬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編, 『韓國服飾』 第十號, 131~132

42) 朴聖實, 앞글, 1996, 304~305

43) 高富子, 앞글, 1989, 102~105

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 강씨의 경우, 집안이 노른계열이어서 원꼬리를 입었다고 하며, 같은 마을의 조씨의 경우는 친정과 시댁이 모두 남인계열이었지만 시댁에 당시 궁녀였던 시조모가 원꼬리로 바꾸라고 하여 그렇게 따랐다고 하는데, 이들 제보 내용은 치마 여밈 차이의 원인 규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1996년 경북 안동의 풍산읍 소산리에서 행한 민속조사에서도 노른계열은 원꼬리 치마를, 남인계열은 오른꼬리 치마를 입었다는 제보를 얻을 수 있었다. 소산리라는 곳은 남인과 노른이 이웃하여 살던 지역이며, 특히 조선 후기 세도정치와 직접 연관된 서울의 장동파를 분파시킨, 후안동김씨의 발상지였다는 점이 노른과 치마 여밈의 방향 전환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비중을 두게 한다.

노른계 집안의 후손인 이규숙 할머니(1905년생) 역시 당시 양반의 치마가 원꼬리 치마였음을 지적하였다. 또 구한말 노른계 집안 분묘의 출토 복식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즉 세도정치의 주축 세력이었던 노른 시파 김병학(1821~1879)의 配 파평윤씨(1819~1853), 後配 파평윤씨(1838~1858)의 묘와 김병국(1825~1904)의 副室 김해허씨(1835~1878) 묘에서 25벌의 치마가 출토되었는데 좌우 주름 부분의 여유 분량이나 걸·안자락의 선단 너비 등으로 보아 원꼬리 치마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정확한 연대의 지적은 어렵지만 대체로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양반, 특히 노른 여성의 치마 여밈이 원꼬리로 전환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노른과 관련된 원꼬리 치마의 보급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궁중에서의 원꼬리가 노른 반가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궁중에서는

일반 반가와와 차별화를 위해 일찍이 원꼬리 치마를 착용하여 왔다고 가정해 보면 당시 세도정치를 통해 세력을 장악한 노른가의 여성들에게 궁중의 관습이 보급되면서 양반 여성의 치마꼬리가 원꼬리로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둘째, 노른 쪽이 세도정치로 득세하면서 다른 당파와의 구별 또는 차별화를 위해 노른 여성들이 치마꼬리를 왼쪽으로 바꿈에 따라 반가의 여성들이 원꼬리를 착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른 여성이 궁중의 안주인이 됨에 따라 궁중 내의 여성들의 치마 여밈도 변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두 번째 가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른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⁴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노른이 다른 당파와 자신들 집단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치마의 꼬리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남인계열이 오른쪽 꼬리로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여밈 방식을 고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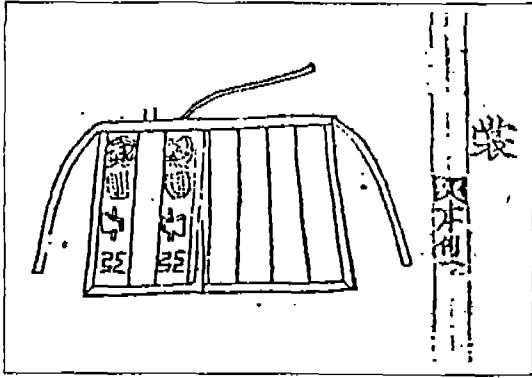
결국 전통적인 오른쪽 꼬리는 오른손 사용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용성에 의한 관습이었다고 한다면 원꼬리로의 전환은 실용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이나 계급 구분을 위한 좌우의 '단순차별화' 원칙에 의한 '구분 기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의복구성에서의 좌우 양상

의복구성에서의 좌우 양상은 통치마나 바지 등의 트임과 접침, 솔기 등의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바지나 통치마에 사용된 트임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트임은 대체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정리하기 위한 배려에서 오

44) 柳喜卿·金美子·姜淳弟, '袞襲衣', 溫陽民俗博物館 編, 『京畿道 半月地域 安東金氏 墳墓發掘調査報告書』, 1989, 251~261

45)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서울: 세계사, 1993, 318 참조



(그림 2) 裳(『國朝五禮儀序例』卷之一 吉禮 祭服圖說)

른쪽에 두었을 것이다.

오른손 사용의 편의를 위해 배려된 경우는 남녀의 경우를 불문하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남성용 관복인 章服의 前三幅 後四幅 裳(그림 2)에서도 오른쪽 옆구리에서 허리끈을 묶도록 되어 있다. 옆트임이 있는 습褶袴 형식의 바지나 옆트임의 통치마 등도 역시 착용시에 그 트임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입는 착용법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밀이 트인 關襠袴 형식의 바지는 좌우 바지 가랑이를 앞중심에서 겹쳐 허리말기에 다는데, 이 경우에도 오른손 사용을 위한 배려의 흔적이 확인된다. 예외⁴⁶⁾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지켜졌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왼쪽 가랑이가 오른쪽 가랑이 위로 겹쳐진 형태로 제작된 바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오른손 사용을 의식한 구성법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살펴보면 중기까지는 시점의 방향에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지만 후기 복식의 솔기에서는 대체로 일정한 방향성이 확인된다. 특히 상의의 경우, 걸선의 솔기는 설

쪽으로, 뒤 중심의 솔기는 오른쪽으로, 안선의 솔기는 길 쪽을 향하고 있다. 즉 앞뒤길 각각 오른손 쪽으로 그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장인우⁴⁷⁾는 이러한 시점의 일정한 방향성을 음양사상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왼쪽과 양을 연결시키기에 앞서 바느질상의 실용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上下衣의 개폐 부분이 오른쪽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점의 방향 역시 인체를 중심으로 앞뒤길 모두 오른손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솔기 방향성 현상이 조선 후기에 정착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바느질상의 합리성이라든가 미적 감각이라든지 어떤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될 뿐이다.

조선시대 남자 바지 유형에는 17세기 전반기까지 여성의 속곳과 밀이 트인 고쟁이형 바지와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⁴⁸⁾ 그렇다면 조선 전기의 남자의 바지에도 여성의 바지류와 마찬가지로 트임과 겹침 등이 있었던 것이 된다.

그간 출토된 바지 유물을 살펴볼 때 상의의 여림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개당고형 바지에서 볼 수 있는 좌우 폭의 겹침 방향이나 합당고형 바지에서 볼 수 있는 옆트임의 위치에 남녀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여성의 치마자락 겹침이나 트임, 또는 남녀 바지의 옆트임이나 좌우 가랑이의 겹침 등은 성별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오른손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배려한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점의 방향이나 상하의 개폐 부분은 대체로 오른손 쪽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6) 각종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개당고 형식의 바지 유물 중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구례 손씨 묘에서 출토된 습 바지 등 세 점 중 2점을 비롯하여 김위 묘 출토의 누비 바지 2점, 건들바우박물관 소장의 진주 하씨 묘 출토의 바지 세 점 중 2점이 오른쪽 다리의 바지폭이 왼쪽 폭 위로 겹쳐져서 바느질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유물에서 왼쪽 다리의 폭이 오른쪽 다리 위로 겹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 16·17C 출토복식 중심', 『服飾』 第35號, 1997, 360

48) 줄고, '김홍조 분묘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이산면 묘지 출토유물 보존처리결과 중간보고회』, 영주시, 1997,

2. 상례복에서의 좌우 양상

1) 左執領 右執腰

전통상례의 初終 단계에서 추출된 의례복식의 상징소를 분석해 본 결과, 방위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례 단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초종 단계에서 생자에게는 의복 자체의 상징소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반면, 사자에게는 행위나 방위 등과 같은 상황적 차원의 상징소가 자주 활용되었음⁴⁹⁾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좌집령 우집요’와 같은 원칙이다. 喪禮에서 ‘復’ 과정은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다. 산 자가 죽은 자에 대한 애정의 도리를 다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⁵⁰⁾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 『國朝五禮儀』⁵¹⁾나 조선 후기 『四禮便覽』을 비롯한 각종 예서의 기록에 보이는 ‘좌집령, 우집요’란 復을 할 때 죽은 자의 上服을 드는 요령이다. 즉 侍者가 상복을 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死者의 상복을 흔드는데, 왼손으로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 부분을 잡는다는 뜻이다.

한편 상례 중에 ‘좌집령 우집요’의 원칙이 적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襚禮 단계에서 衣를 들 때이다. 수례란 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의례로서, 親者襚, 庶兄弟襚, 朋友襚, 君使人襚라는 네 종류의 수례가 있다.⁵²⁾ 襚衣는 수례 단계에서 사자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서의 옷을 말하며 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대소렴에 사용한

다.⁵³⁾ 수례에서 襚者가 襚衣를 전할 때는 복을 하는 시자가 上服을 드는 것과 동일한 요령으로, 즉 왼손으로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당에 오른다.⁵⁴⁾

이처럼 復이나 襚禮에 ‘좌집령 우집요’의 요령으로 옷을 든다는 것은, 곧 옷에서 중요한 깃 부분을 양과 생의 의미를 지닌 왼손으로 들고 허리는 나머지 손인 오른손으로 든다는 뜻이 될 것이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사용하여 지고 든다는 것은 당시 좌가 右와는 달리, 陽과 生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부모의 상에 각각 달리한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父喪이나 母喪에서 차별 없이 ‘좌집령 우집요’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斂襲衣 여밈에서의 좌우

상례의 ‘左衽不紐’ 구절은 유학자들 간의 논의가 분분했던 부분이다. 반함을 한 후 습을 할 때 우임으로 한다.⁵⁵⁾ 그러나 소렴이나 대렴에서는 祭服을 좌임으로 하며 고리를 만들지 않고 묶는다고 하였다.⁵⁶⁾ 시신에 襲을 할 때는 우임으로 하고 소렴과 대렴에서 좌임으로 한다는 것은 상의의 좌임만이 아니라 이불로 싸는 경우도 해당된다. 즉 사자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고 회생을 희망하는 습 단계에서는 산 자와 마찬가지로 우임을 하지만 회생을 포기하고 인정하는 염 단계에서는 염의를 산 자와 구별되는 좌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불 역시 발과 머리를 싼 후 염의의 제복과 마찬가지로 좌임을 한다.⁵⁷⁾ 이것이 바로 대소렴의 좌임이다. 이

49) 줄고, ‘의례복식의 상징작용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의류학회지』 19(2), 1995, 203~215

50) 『禮記』 「檀弓」下, ‘復盡愛之道也’

51) 『國朝五禮儀』卷之七 凶禮 八~九, 復 ‘內侍以常御上服左荷之左...(중략)...執領右執腰北向三呼畢...’

52) 『家禮』卷四 六

53) 『禮記』 「檀弓」下, ‘不釋祭服而往遂以襚之(注)...以此襚之者 以其不用襲也 凡襚以斂’.

54) 『禮記』 「雜記」 ‘首子曰寡君使某...(중략)... 襚者執冕服 左執領右執腰 入升堂致命曰寡君使某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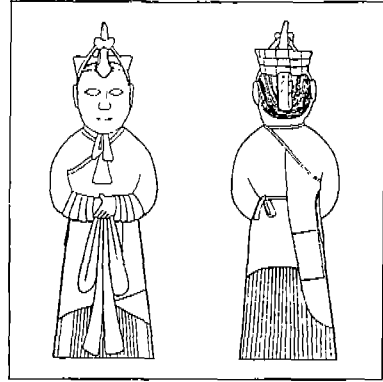
55) 李縉, 『四禮便覽』卷之三 喪 十五

56) 『禮記』 「喪大記」 ‘小斂大斂 祭服不倒 皆左 結紱不紐’

57) 李縉, 『四禮便覽』卷之三 喪 十三, ‘襲...遷尸 於其上(備要)衣之皆右衽...’, 二十三~四 遂小斂, ‘...然後以餘衣掩尸之(以衾(註)先掩足次掩首次掩左 次掩右...’ 二十七 乃大斂, ‘...收衾先掩足次掩首次掩左次掩右...’

는 곧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필결의 뜻⁵⁸⁾이기도하다.

한편 근래의 관행으로 壽衣의 옷깃을 생존시와 반대인 좌임으로 바느질하는 경우가 있다. '95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기획했던 「한국 복식 2천년」에 전시되었던 수의⁵⁹⁾에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서에서 수의를 좌임으로 만든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는 상례에서의 좌우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白玉雕像(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1992, 37)

3) 袒

중국 漢代 초에 高祖 劉邦이 죽은 후, 그의 아내 呂后가 정권을 잡으려 하자 太尉 周勃이 군사들을 모아 놓고 여씨를 위하는 사람은 右袒을 하고, 유씨를 위하는 사람은 左袒을 하라고 하자 장병들이 모두 좌단하여 유씨의 편을 드는 의사를 나타냈다⁶⁰⁾고 하는 고사에서 袒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그 후 袒은 '옷통을 벗다' 또는 '소매를 걷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상례에서 특히 상주의 옷차림에 적용되어 왔다. 대체로 단이란 좌단을 의미하며 왼팔을 드러내는 것이 관행이다.

『儀禮注疏』 「鄉射禮」에 주인의 하인인 司射가 袒을 하는데 '疏'에 袒은 左袂衣로, 길흉사에 관계 없이 모두 袒左를 한다⁶¹⁾고 하였으며 大射儀에도 袒左를 한다⁶²⁾고 하였다. 그러나 受刑 때는 右肉袒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단을 하는 것은 일이 편하기 때문이고 또 陰이기 때문⁶³⁾이라고 하였다.

즉 古禮에 袒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례만은 아니었으며 그리고 상황의 성격에 따라 袒의 방위를 좌우로 달리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물상이나 회화 등의 자료에서는 기록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고궁박물관 소장의 춘추전국시대의 雕像 중에는 오른쪽 소매를 벗은 인물상(그림 3)이 있다.⁶⁴⁾ 이 인물은 오른쪽 팔을 드러내고 있으니 관행적으로 해석하자면 右袒이다. 이 조상의 용도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부장품이라고 한다면 상례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喪事에 좌단을 한다고 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자태가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右袒이 되었을 까라는 추측도 해 보지만 남녀가 단을 좌우로 달리했다는 근거 역시 없다. 오히려 『상례비요』에는 여자는 단을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더욱 알 수 없다.

58) 張顯光, 旅軒先生集 卷四 答金孝徵

59)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 복식 2천년』,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1995, 60(사진 150)

60) 『左傳』 '古人自是有左袒右袒之法 故至漢初周勃討呂氏有爲劉氏左袒爲呂氏右袒之...'

61) 『儀禮注疏』 卷五 鄉射禮 二十三, '司射適堂西袒決遂...(중략)...注司射主人之吏也...(중략)...疏...(중략)...袒左免衣也 知袒左者凡事無問吉凶皆袒左是以士喪主人左袒 此及大射亦皆袒左 不以吉凶相反 唯有受刑袒右 故觀禮云乃右肉袒於廟門之東...'

62) 『儀禮注疏』 卷七 大射儀 三十五 '...袒左免衣也...'

63) 『儀禮注疏』 卷十 覲禮 十八 '注右肉袒者刑宜施於右也...疏...(중략)...刑袒於右者 右是用事之便又是陰 陰主刑以不能用事故刑袒於右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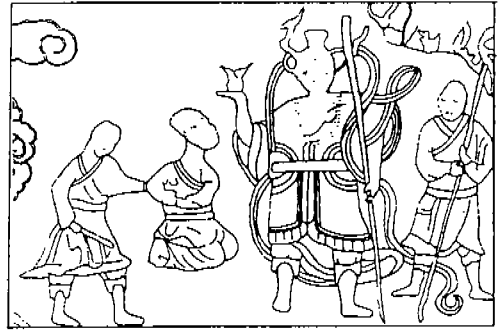
64)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 商務印書館, 1992, 37, 插圖 九一一 참조



(그림 4) 得眼林故事(西魏 285窟)(鄧健吾, 『敦煌의美術』, 1980, 29)

敦煌의 西魏 285窟 南壁부분에 그려진 得眼林故事 장면(그림 4)⁶⁵⁾ 중 오른쪽 팔을 드러내고 활을 당기고 있는 인물이 있다. 오른팔을 드러냈으니 右袒이다. 그러나 『의례』에 대사의나 향사례에 좌단을 한다고 했으니 이 역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십층석탑에는 꿇어 앉아 있는 인물이 새겨져 있다(그림 5).⁶⁶⁾ 受刑시의 袒 모습으로 추정된다. 사천왕 같은 한 인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 인물은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다. 기록에 受刑 시에는 우단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 제시된 세 편의 가시적 자료는 모두 기록에



(그림 5) 원각사지 십층석탑 인물 묘사도(궁중유물전시관 편, 『이것이 탑골탑의 놀라운 조각들!』, 1994, 20)

나타난 袒 방향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좌단이 진정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전통문화 속에서 袒 제도가 오랜 기간동안 중요하게 사용된 경우는 역시 상례로서, 흔히 飯食 때 주인은 좌단을 한다.⁶⁷⁾

『儀禮』 「士喪禮」 疏에 ‘단이란 左袖를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의 帶 안으로 넣어 편리성을 취하는 것이다.⁶⁸⁾라고 단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예기』나 『상례비요』⁶⁹⁾에서도 단을 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며 시신을 옮기고 입관시키는 일에는 襲⁷⁰⁾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공자는 좌단하는 이유를 양의 변함을 의미하는 것⁷¹⁾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좌단의 이유에 대해 『예기』나 『의례』, 『상례비요』 등에서 편

65) 鄧健吾 攝影, 『敦煌의美術』, 東京: 大日本繪畫, 昭和55, 29

66) 궁중유물전시관 편, 『이것이 탑골탑의 놀라운 조각들!』, 서울: 궁중유물전시관, 1994, 20

67) 申義慶, 『喪禮備要』 上 八~九 襲, ‘...衣之皆右袒’ 乃飯舍主人哭盡哀左袒(按)覲禮(疏)禮事左袒無問吉凶禮皆袒左禮動尸舉柩皆袒於事便也 十六, 遂小斂 ‘... (又按)禮動尸舉柩皆袒於事便也婦人不袒...’ 十七, 主人主婦憑尸哭辨... (중략)... 男子斬衰者袒括髮齊衰以下至同 李縉, 『四禮便覽』 卷之三 喪 十五~十六 乃飯舍, ‘主人哭盡哀...左袒 自前扱於腰之右...’

68) 『儀禮』 卷十二 二十七 ‘主人出南面左袒扱諸面之右... (중략)... (疏)釋曰云扱諸面之右者面前也 謂袒左袖扱於右腋之下帶之內取便也...’

69) 『禮記』 「喪大記」 凡斂者袒 遷尸者襲 (疏)凡斂謂執大小斂事也 事多故袒爲便也 遷尸者襲謂大斂於地乃遷尸入棺之屬事少故襲

70) 여기에서의 ‘습’이란 소매를 벗지 않고 제대로 입는 것을 말한다.

71) 『禮記』 「檀弓 下」, ‘...左袒以示陽之變 右還以示陰之歸...’

리성을 취한 것이라고 했고, 『예기』에서는 편리성과 아울러 양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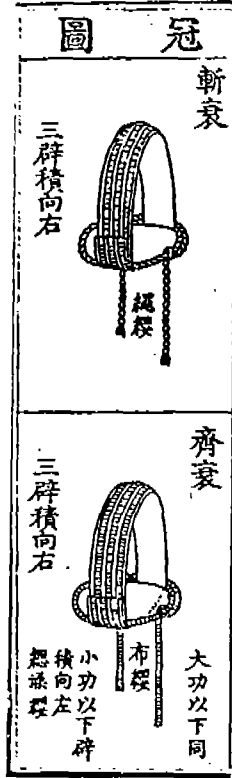
한편 불상의 착장모습은 ‘偏袒右肩’ 또는 ‘通肩’으로 설명되는데, 편단우견이란 ‘왼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며 ‘통견’은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경우를 말한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또 인도의 사리와 같은 드레이퍼리형의 민족복식에서는 편단우견 형식이 흔히 발견된다. 편단우견 형식은 오른팔의 사용을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고대의袒 제도가 편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오른쪽 소매가 아니고 왼쪽인지 의문이다.

요즈음에도 상례 관행 중 간혹 父喪에는 좌단을, 母喪에는 우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南溪 朴世采(1631~1695)도 남자상에 좌단을 하고 여자상에 우단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⁷²⁾고 지적한 바 있고 洪直弼(1776~1810)은 ‘飯食 때 상주는 喪의 준비를 논하지 않고 左袒을 하는데, 좌단은 편함을 취한 것이다⁷³⁾’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죽은 자의 성별에 따라 좌단과 우단을 구별지어 하는 것은 좌우를 지나치게 남녀와 결부시킨 과잉 해석과 적용의 예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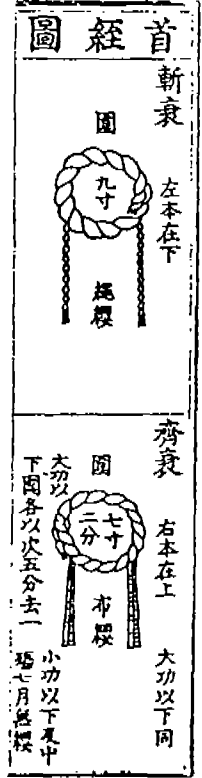
4) 冠과 首經에서의 좌우 방향

흔히 屈巾이라고 하는 상례용 관은 孝巾이라고 하는 頭巾 위에 덧쓰는 거친 마포의 外冠을 말하는데, 斬衰에서 總麻에 이르기까지 상의 경중에 따라 관에 사용하는 옷감의 송수, 끈의 재료 등에 차이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주름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禮記』「雜記上」에 喪冠은 條屬으로 길흉을 구별하는데, 3년상의 練冠 조족은 右縫하고 小功 이하는 좌로 한다⁷⁴⁾고 하였다. 『상례비요』나 『사례



(그림 6) 冠圖(李緯, 『四禮便覽』卷之四 喪圖五)



(그림 7) 首經圖(李緯, 『四禮便覽』卷之四 喪圖五)

편람⁷⁵⁾ (그림 6)에도 상의 경중에 따라 굴건의 주름 방향이 좌우로 다르게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참최복과 재최복, 대공관은 三襲積向右이고 소공관과 시마관은 三襲積向左이다. 좌가 양과 생의 방위이기 때문에 좌가 무겁다고 생각되는 참최에서 대공까지는 凶 방향인 右向의 주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소공과 시마는 상이 가볍기에 吉 방향인 左向의 주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상사와 같은 陰事에는 우측을 높이는 ‘존우’ 원칙 때문일 것이다.

한편 관 위에 다시 두르는 首經(그림 7) 역시 복

72) 『常變通攷』卷之八 十四 小斂 ‘南溪日時俗率多復後袒以至成服 又以爲男左女右從其喪而左右皆無據’

73) 洪直弼, 『梅山集』卷二十四 庚子七月

74) 『禮記』「雜記」‘喪冠條屬以別吉凶 三年之練冠 亦條屬右縫 小功以下左...’

75) 『四禮便覽』卷之四 喪禮 二 成服...冠 ‘...大功以上皆向右 小功以下皆向左...’

의 등급에 따라 재료와 들레에 차이가 있으며 시작과 결침의 위치에 좌우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다. 참쇠의 수질은 左本在下 즉 下本在左로서 重服이다. 안으로 統하며 본래 양이다. 父는 양이고 좌 역시 양이다. 下란 안이기 때문에 重服은 안으로 통하는데 비통함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母喪의 右本在上은 輕服이고, 밖으로 통하며 본래 陰이다.⁷⁶⁾ 즉 좌는 陽으로 父가 天이기 때문이고, 우는 陰으로 母가 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의 특징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복식에 좌우 개념이 적용된 경우를 일상복과 상례복을 중심으로 볼 때, 일상복에서는 상의와 하의의 여밈, 의복구성, 상례복에서는 복과 수레 단계에서 上服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좌집령·우집요', 염습의에 사용된 좌우 여밈, 상주의 祖, 관의 주름 방향과 수질의 본이 놓이는 위치 등에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서 드러나는 좌우개념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상복 상의의 여밈의 경우

일상복 상의의 여밈에서 추정되는 좌우 개념은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좌우에 관한 이론들 중에는 호복 좌우이 무기 사용이나 기아와 관련된 실용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임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지적했듯이 우임은 오른손 사용을 권장한 문화권에서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실용성 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좌우임의 채택 여부는 기만문화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서 좌·우임 모두 그 문화에 따른 실용성에 근

거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문화적 성격에 의해 좌우임 착용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여밈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문화집단이나 민족을 구별하는 단서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문화권 내에서 좌우임이 우임으로 변동되는 과정 중에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성별과 계급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권위나 권력과의 밀착성 정도를 드러내는 단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임은 걸자락의 끝이 착용자의 오른손 쪽을 향한다. 안자락보다 걸자락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외양을 중시하는 문화적 성격을 의미하며 착용자의 오른쪽을 향하는 것을 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말해 준다. 또한 자락이 오른쪽을 향하지만 자락 자체는 왼쪽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좌로 덮으니 陽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왼 손으로 고름을 풀기에 편하다는 해석이 부가적으로 설명되기에 이르는데 이는 우임이 이미 정착된 후의 일이다. 음양사상이 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좌는 양이므로 왼손은 양의 손으로 인식되었기에 우임 해석에 '추상화 원리'에 의거한 '좌양우음'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상복 상의의 우임은 우선 '실용성 원리'에서 시작되었고 추후 의미를 덧붙이는 과정에서 '추상화 원리'인 '좌양우음' 원칙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치마 여밈의 경우

뒤에서 여밈은 형식의 전통 치마는 국말 이전까지 대체로 오른쪽 꼬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 여밈의 치마는 우임 상의의 여밈에서와 마찬가지로 걸자락의 끝이 오른손 쪽을 향한다. 입을 때는 오른손 쪽 자락을 먼저 몸에 두르고 나머지 왼쪽 자락을 덮어서 오른쪽 꼬리로 만든다. 그렇

76) 『儀禮注疏』卷十一「喪服」四「士喪禮鄭注云下本在上重服統於內而本陽也以其父是陽左亦陽 言下是內故云重服統於內以言痛從心內發故也 此對爲母右本在上輕服統於外而本陰也...」

게 하면 오른손으로 걸자락을 잡아서 마무리하기가 편하다. 이것 역시 ‘오른손 사용’ 원칙에 근거한 ‘실용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국말에 와서 원 꼬리가 양반을 나타내고 오른쪽 꼬리가 상민 내지는 천민을 의미하게 된 것은 권력자들이 본래의 것에서 자신들의 것을 변형시켜 차별화를 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과는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인데 ‘오른쪽 꼬리’이므로 결국 ‘원 꼬리’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현재와 다른 것으로 ‘좌’를 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원 꼬리의 형성 메카니즘은 금출에서 오른쪽 꼬임이 일반적인 것이기에 다른 것으로 ‘원꼬임’을 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즉 다른 것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추상화 원리’의 일종인 ‘단순차별화’ 원칙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 원리에 의해 상대방의 계급은 물론 소속집단, 출신 배경, 거주지역 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었다.

3) 의복구성의 경우

章服의 黻을 비롯해서 옆트임 통치마나 옆트임 바지에서는 개폐 부위가 오른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밑이 트인 개당고형 바지의 경우, 좌우 가랑이를 겹쳐 바느질할 때 왼쪽 가랑이를 오른쪽 가랑이 위로 겹쳐서 바느질하였다. 이러한 바느질법은 오른손으로 옷 속을 정리하거나 맵시를 낼 수 있도록 오른손 사용을 배려한 구성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솔기 방향에 일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길은 앞길대로, 뒷길은 뒷길대로 오른손 쪽을 향하는데, 전 시대보다 좌우에 대한 개념이 확고히 정착되면서 좌우 개념의 적용이 일반화되었거나 아니면 합리적 구성법의 모색 또는 그로 인한 미의식의 영향 등이 그 경향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따라서 의복구성법에 반영된 좌우 개념은 역시 ‘오른손 사용’이라는 ‘실용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옷이거나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접 부분이기 때문인지 별도의 특별한 의미가 언급된 경우는 없다.

4) ‘좌집령 우집요’의 경우

‘좌집령 우집요’는 상례 중 復과 襚禮 과정에서 상복을 드는 요령이다. 왼손은 상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깃을 든다. 상의를 셀 때 ‘領’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머리부분의 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생을 기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는 손은 양의 손인 왼손이어야 한다. 이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양의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상화 원리’의 일종인 ‘좌양우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반면에 남은 오른쪽은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다.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할 이유는 없으나 왼손을 쓰고 남은 것이 오른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과는 달리 상례에서는 ‘좌양우음’ 원칙이라는 ‘추상화 원리’가 처음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례가 일상적인 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단순차별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만큼 의례는 추상적인 사고 단계의 것임을 의미한다.

5) 염습의에서의 경우

염습 과정에서 염습의와 衾을 쌀 때 좌우임의 변화가 나타난다. 습 단계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여 일반 산 자와 동일하게 우임으로 입힌다. 그러나 소렴과 대렴은 회생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으로서의 예를 다하게 되므로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이 좌임이다. 즉 산 사람과 반대로 싸는 방법의 모색이다. 산 사람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죽으면 오른쪽이 아닌 쪽, 즉 왼쪽이 되는 것이다. 이는 ‘추상화 원리’의 하나인 ‘단순차별화’ 원칙의 경우이다.

우임은 좌측 길이 걸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길 기준을 보거나 아니면 걸자락의 시작이 왼편에 있다고 보면 ‘左生右死’로 ‘좌양우음’ 등의 일반

적인 원칙과도 일치할 수 있으나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길의 끝이 향하는 쪽을 기준으로 하여 ‘좌사우생’이라고 하는 독특한 원칙을 적용시킨 것이 특징이다.

6) 祖의 경우

단은 어깨를 드러내는 착장방식으로, 受刑에서는 우단을 하였을 뿐, 길흉사 모두 좌단이었다고 한다. 좌단, 우단의 기록이나 관행과 회화 자료 등에서 단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음양론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좌길우흉’이나 ‘좌양우음’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하기 위해서는 길흉사를 막론하고 오른쪽을 내놓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고 수행에서는 수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오른손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오른팔을 덮고 왼팔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본다면 우단은 오른쪽을 덮는 것으로, 좌단은 왼쪽을 덮는 것으로 되어야 이치에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록에 단을 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일차적으로 ‘실용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양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등의 해석에는 단지 일상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차별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7) 관과 수질의 경우

굴건의 주름 방향은 상의 경중에 따라 좌우로 구분된다. 참쇠에서 대공까지는凶의 방향인 右向 주름이고 소공과 시마는吉 방향인 左向이다. 重服을 입는 참쇠 이하 대공까지의 우향 주름은 ‘추상화 원리’의 하나인 ‘좌길우흉’ 원칙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복에서 우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복이라는 차별화를 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향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차별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경복이 길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결코 길한 상황은 아니다. 有服者로서의 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지 重服에 비해 가벼울 뿐이다.

수질은 굴건 위에 두르는 끈으로, 관의 주름 방향에 적용된 원칙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父는 양이므로 끈의 본을 왼쪽에 두고 母는 음이므로 끈의 본을 오른쪽에 둔다는 것이다. 즉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존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상화 원리’의 하나인 ‘남좌여우’에서 ‘부좌모우’ 즉 ‘좌부우모’의 원칙으로 확대된 것이다. 복식에서의 좌우양상에서 ‘남좌여우’ 원칙이 적용된 이래적인 예가 된다. 冠이 陰事로 적용되어 상의 경중을 드러내기 때문에 수질 본의 방향은 父喪인지 母喪인지를 구별하게 한다. 따라서 관과 하나를 이루는 首經은 굴건과 반대인 陽事로 적용되어 관과 수질 자체의 음양 조화를 이루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추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좌우 양상의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를 정

<표 3>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의 특성

| 전통복식에서의 좌우 양상 | | 천문 원리 | 실용 원리 | 추상화 원리 | |
|---------------|---------|-------|---------|--------|-------|
| 일상복 | 상의의 여밈 | · | 오른손 사용 | 좌양우음 | · |
| | 치마의 여밈 | · | 오른손 사용 | · | 단순차별화 |
| | 의복구성법 | · | 오른손 사용 | · | · |
| 상례복 | 좌집령·우집요 | · | · | 좌양우음 | · |
| | 염습의 좌우임 | · | · | 좌사우생 | 단순차별화 |
| | 단 | · | 오른손 사용? | 좌양우음 | 단순차별화 |
| | 관 | · | · | 좌길우흉 | 단순차별화 |
| | 수질 | · | · | 좌부우모 | · |

리하면 <표 3>과 같다.

IV. 맺음말

전통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시도된 본 연구는 복식문화 속에 산재되어 나타나는 좌우 양상을 문헌이나 회화, 유물 등의 자료와 관행 자료를 중심으로 개념 체계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개념은 복식문화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예를 포함한 각종 생활양식의 중요한 지침으로 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문화 속에서는 ‘오른쪽’이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반면 ‘왼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음양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우’보다는 ‘좌’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尊左, 尊右의 경향은 민족이나 시대, 문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존좌, 존우 경향의 변화가 좌우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전통생활 속에서 드러난 좌우 양상은 자리배열이나 건물 배치, 공간배치, 지명, 소목제도, 음식배열, 금줄, 태아 감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존좌’, ‘존우’의 경우로 분리될 수 있는 각 상황들은 그 상황 성격에 맞는 ‘左文右武’, ‘左東右西’, ‘乾左濕右’, ‘左陽右陰’, ‘左吉右凶’, ‘左生右死’, ‘左廟右社’, ‘男左女右’, ‘左聖右俗’, 그 외에 ‘西上’이나 ‘오른손 사용’, ‘단순차별화’와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원칙들은 대체로 천문원리, 실용원리, 추상화 원리와 같은 범주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좌우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복식에서 나타나는 일상복과 상례복의 범주에서의 좌우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일상복에서는 상의의 여밈과 치마의 여밈, 의복구성 등에

서 확인되었고 상례복에서는 上服을 다루기 위한 ‘좌집령 우집요’ 방식, 염습의 여밈, 단, 관과 수질 등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상의의 여밈은 좌·우임 모두 문화 특성에 따라 실용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좌임은 무기 등의 사용과, 우임은 ‘오른손 사용’과 같은 실용성에 근거한 문화적 이유로 설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좌임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6세기 경 거의 정착되는 우임 관습은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적 배경을 알려주거나 성별이나 계급, 권력과의 밀착 정도, 신문화의 수용능력 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우임은 양의 손인 왼손으로 고름을 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추후 ‘좌양우음’ 원칙이라는 추상화 원리에 의거하여 첨가된 해석으로 파악되었다. 치마 여밈에서도 역시 오른쪽으로 치마는 ‘오른손 사용’ 원칙이라는 ‘실용원리’에 의해 형성된 관습으로 파악되었으며 왼쪽으로의 전환은 특정계급의 자신들을 다른 계급과 차별화하기 위해 채택한 ‘단순차별화’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의복구성 역시 철저하게 ‘오른손 사용’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현상들이었다. ‘좌남우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복식에서의 좌우양상의 특징이었다.

한편 상례복에서는 ‘좌집령 우집요’의 원칙이 復과 襚禮 단계에서 上服을 드는 요령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때는 ‘좌양우음’이라는 추상화 원리가 적용되어 있었다. 陰事이지만 존좌의 원칙이 적용된 이유는 아직 사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노력으로 볼 수 있었다. 염습 단계에서 습의를 우임으로 하고 대소렴에서 좌임을 하는 이유는 습 단계에서 산자의 여밈 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아직 죽지 않았음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대소렴에서의 좌임은 회생을 포기한 필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추상화 원리인 ‘단순차별화’ 원칙에 의해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좌사우생’

의 특이한 여밈 원칙이 발생하였다.

한편 단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례에는 대사례나 향사례, 길흉사에 左袒이 적용되었으며 右袒은 受刑에 적용되었다. 좌단, 우단에 있어서의 방위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으나, 단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실용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길흉사에 모두 좌단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좌양우음'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상화 원리인 '좌성우속' 원칙에 의거하여 凡事가 아니라는 '단순차별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굴건에서의 條屬 방향은 중복자에게는 右縫으로, 경복자에게는 左縫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음사로서 '좌길우흉'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질은 부상에는 좌, 모상에는 우가 중시되어 '좌부우모' 즉 '좌양우음'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양사로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음사로 적용된 관과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상복과 상례복을 중심으로 본 전통복식문화에서는 세 원리 중 천문 원리가 직접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실용원리와 추상화 원리가 중요한 원리로 추출되었다. 이는 '天子南面'이라든지 '左文右武' 등의 관직이나 서열 배열과는 관계없이 실용적인 목적에서 좌우 양상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리고 '좌남우녀'의 원칙을 적용한 복식현상도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 복식문화가 지닌 특징이었다.

원리가 좌우 양상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추상화 원리도 관여하고 있으나 이는 실용원리에 의해 이미 생성된 후, 의미를 추가로 부가하기 위해 적용한 원칙들에 의해 생성된 것들이었다.

한편 상례복에서는 실용 원리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일상복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었다. 따라서 상례는 일상적인 것과는 달리 의례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좌양우음'이나 '좌부우모' 등 음양사상과 관련된 문화적 원칙들과 더불어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단순차별화' 원칙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간혹 추상화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잉해석으로 좌임의 수의를 제작한다든지 부·모상에 따라 좌단, 우단으로 차별화를 두는 등의 근거 없는 양상을 낳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정리에 의해 미흡하나마 전통복식문화에 투영된 좌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분석 과정에서 자료 부족으로 다소 애매하게 추정되거나 아전인수적으로 해석된 경우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Right-and-Left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Underlying principles on the origin and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ight-and-Left (R-&L)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is studied in this paper.

Among Korean traditional costumes, ordinary and funeral costumes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R-&L expanded into different elements of daily life among Korean people is also considered as a process of conceptual development : starting from astronomy principle, then developed to pragmatism principle, and expanded to abstraction principle.

No evidence on the case where the astronomy principle was directly applied to was found in this study. In most cases, pragmatism and abstraction principles are observed as underlying principles.

In ordinary costumes, pragmatism principle is the fundamental base for R-&L through right-hand-use rule. Even though abstraction principle was found in some ordinary costumes, we believe that this was generated for adding more meanings in addition to the pragmatism principle.

In funeral costumes, pragmatism principle was almost totally ignored unlike in ordinary

costumes because the funeral rite was performed though formality with abstract thoughts. The abstraction principle was exercised with the form of simple-discrimination rule based on the dual system along with Yin-Yang related cultural rules such as 'Yang-left-and-Yin-right' or 'father-left-and-mother-right'. However, the case where 'left-male-and-right-female' rule is applied was not found in this study.